

창세기 읽기 스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장입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 쌓는 이야기가 창세기 구성에서 볼 때 그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들어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와 아브라함 이야기 사이에 바벨탑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바벨탑 사건도 성서기자는 좋지 않게 보는 거거든요 기본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노아홍수 이전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도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악했다고 했잖아요. 그 악에 대한 도저히 이제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이 땅에 가득해서 홍수 심판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탑도 그런 인간의 죄를 가리키거든요. 이 바벨탑이 어떤 면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먹는 이야기하고 닿아 있습니다. 뭔가 자기들이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선악과 문제는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넘어보자는 그 욕망에서 나온 거고,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홍수와 같은 심판을 극복해 보자는 욕망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본문에서는 이 노아 홍수 사건 때문에 이 바벨탑을 세웠다고 하진 않아요.

4절에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한 생각으로 바벨탑을 만든 거거든요 홍수와 같은 심판을 면해 보려는 생각이 저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데 올라가게 되면 홍수가 나더라도 죽지 않잖아요. 선악과 이야기가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극복해 보자고 한 거고 이 바벨탑 사건도 인간의 그 한계에, 여기서 무슨 한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한계가 저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넘어설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더 발전하고 더 높이 오르고 더 자유롭게 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노력을 한편으로 해야 되지만 그게 피조성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표현이 적당한 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 문제가 바벨탑 사건과 연결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있잖아요. 서로 말이 다른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니깐 바로 그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여러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과 보혜사 성령강림 사건은 근원적으로 닿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닿아 있는 거죠.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언어가 원래 하나였었는데 인간의 필요성을 넘어서려고 하는 욕망이 너무 과대하게 나타남으로써 언어가 달라졌다고 한다

면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은 다른 언어들이 다시 하나가 됐다고 하는 언어가 문제죠. 좋은 뜻으로도 그렇고 나쁜 뜻으로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 인공지능이나 그런 기계로 언어의 한계가 극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지 않았습시다만은 어떤 앱을 사용하면 우리나라 말로 그 앱에다 말하면, 그 스마트폰에다 말하면 그리고 어느 걸 작동시키면 그게 뭐 인도 말로 뭐 일본어로 뭐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돼서 소리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게 더 발전하게 되면 즉석 통역이 가능한 그런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도 스마트폰이 있고 내가 스마트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서로 연결시켜서 자기네 나라 말로 하더라도 저절로 상대방에게는 통용이 돼서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수준까지 언젠가는 갈 것 같습니다.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건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건축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건축으로 발전했다기보다는 건축술에 인간의 문명이 녹아 있다고 했습니다. 피라미드도 그렇고 만리장성도 그렇고 여러 고대 문명 발생지에는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지는거죠. 이 바벨 탑 이야기는 그대로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이집트의 문명과 연결됩니다. 자꾸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게 현대에는 우주여행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끝을 모르는 인간문명의 발전이 결국은 문명을 파괴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노아 방주를 만들 때 쓰던 재료들도 나오고 그 건축기술이 여기도 아예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류 문명은 저 성읍과 탑을 반복해서 건설했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측면에 흠여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성읍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런 표현이 신화적으로 보이죠. 성경에는 신화적인 표현들이 가끔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인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놔둬선 안 되겠다 뭔가 좀 다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신화적인 겁니다.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어디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언어가 문제라고요. 좋은 쪽으로든 그렇지 않

든지 그렇습니다. 하이데거가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거기에 존재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그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삶이 거기 들어 있는 거죠.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물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말이 먼저 있었다고요. 언어가 먼저 있었다고요 이게 말이 좀 안 되죠. 언어 철학자 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볼펜이 있잖아요. 누가 이것을 만들었겠죠. 볼펜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볼펜이라는 언어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만들기 전에는 그 볼펜이라고 하는 말은 없었어요. 이걸 만들고 이걸 누가 볼펜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근데 말은 나중에 붙였지만 원래 볼펜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볼펜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구도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언어는 형상인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 볼펜 이거는 질료인 거죠. 여러가지를 조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잉크도 있어야 되고 플라스틱도 있고 이게 다 질료입니다. 이게 질료 이런 것만 있어서는 볼펜을 만들 수가 없어요. 볼펜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이 있기에 그 형상이 이제 이 질료를 사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언어가 단순히 의사 소통하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표현은 일리가 있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는 언어 종교 언어의 종교거든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있었다고 말이죠. 그게 언어인 거예요.

불교도 불교 교리가 있죠. 언어가 있죠. 근데 거기는 이제 뭐 화두를 붙든다는 식으로도 가잖아요. 기독교 보다는 그 언어가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그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할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표현해서 기독교, 성서 종교는 언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철학적 사유에 근거해서 본다면 언어를 존재하는 근원으로 보는 겁니다. 언어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었기에 다른 것들에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나무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나무 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무가 나오게 된 거지요.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어 존재론적인 관점인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로고스가 있었던 거죠. 6월 첫째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만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거 언어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삼위일체라는 언어가 있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언어 혹

은 개념이 먼저 있었던 거죠. 하나님 보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있었다는 말이나 그건 아니에요. 선명하게 와 닿지가 않네요. 제가 이런 쪽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엉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전달이 될 겁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그거를 만들어 낸 건 아니거든요 만들어 냈죠. 처음부터 원래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언어 존재론적 차원에서 본다면 삼위일체 라는 그 말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교부들이라고해도 좋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 적절한 개념을 그 삼위일체에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기 전에 삼위일체가 먼저 있었다고 일단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규정된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의 사물처럼, 하나님을 사물이라고 표현하면 안되는데,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볼펜이 있었던 것처럼 볼펜이라고 하는 사물이 있기 전에 볼펜이라고 하는 언어가 뭔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인식의 문제예요. 그거는 말 장난이네 뭐 인식이네 근거 없네 그냥 사람이 그렇게 신학자나 철학자가 인식만 하는 거지 참된 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 세계가 그렇게 확실한 실증적으로 그리고 인과율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제 우리 한국어는 이렇게 철학을 하거나 과학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언어는 아닙니다. 시제가 명확하지 않구요. 그리고 전치사,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구요. 단어들이 개념적이지가 않습니다.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자는 굉장히 개념적이에요. 순수하게 우리말만 써서 신학과 철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자도 빼고 다 빼고 순수하게 우리말로만 하기는 힘들어요.

우리말의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과학적인 철학적 사유 뭐 그런 식으로 세계를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아니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은 형용사가 많이 발전돼 있다고 하더라도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론을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바벨론,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사용하는 이 성경(마틴 루터 독일어 성경에 각주가 들어 있는 우리말 개역개정)에 짧은 각주들이 있는데 아주 좋아요. 짧지만 아주 정확하게 중요한 걸 짚어줍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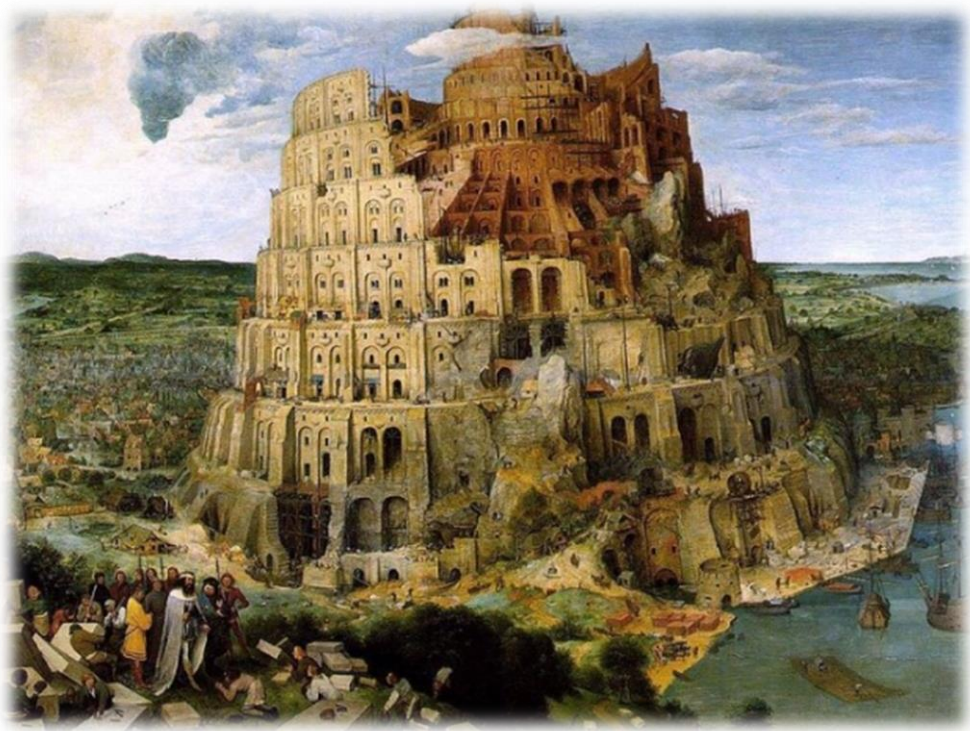
바벨이라는 이름은 혼잡하게 하다는 뜻하는 히브리 낱말과 발음이 비슷하여 그렇게 풀이한다. 바벨론 자체에서 통하는 민속적인 풀이에 따르면 이는 하나님의 문 곧 하늘 문을 뜻한다 본디 뜻은 알 수 없다.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 있고 바벨론의 민속에서 어떤 뜻이 있는데 본래의 뜻은 다 모른다고 하네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사람은 서로 말이 통하면 작당을 하니까 좋은 쪽으로 더하고 또 나쁜 쪽으로도 하니까 혼잡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앞에서 제가 짚은 대로 그 선악과도 그렇고 이 바벨 탑 사건도 그렇고 인간의 피조적 한계를 그 분수를 알지 않고 그걸 넘어 보려는 욕망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와 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는 뭐 똑같지는 않아요. 이 선악과 문제에서는 정말 아담과 이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실락원이 되어 버린 거죠. 근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언어만 이제 달라지게 된 거니까 그 결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긴 있으나 그 동기에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에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그 필요성을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파탄을 불러왔다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성서의 관점이 저는 과하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인간은 별 수 없어 흠으로 왔으니까 우린 어쩔 수 없어 숙명주의에 떨어지자고 하는 건 아닌데 그거 피조성을 인간의 기술로 넘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인공지능 챗GPT 등등에서 나오는 그런 시도 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별로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로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는 되지만 거기에서 유토피아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네 그것입니다.



피트 브뤼겔(Pieter Bruegel the Elder), The Tower of Babel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